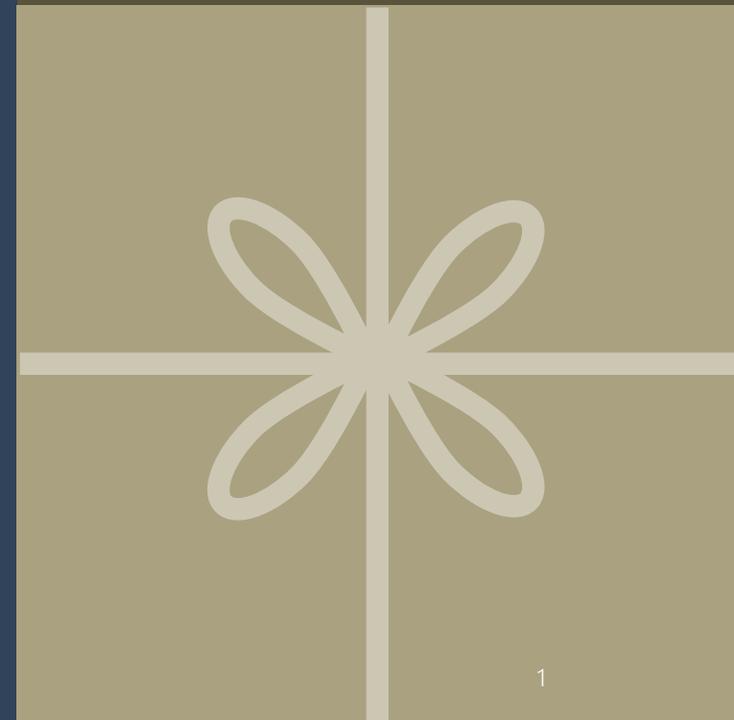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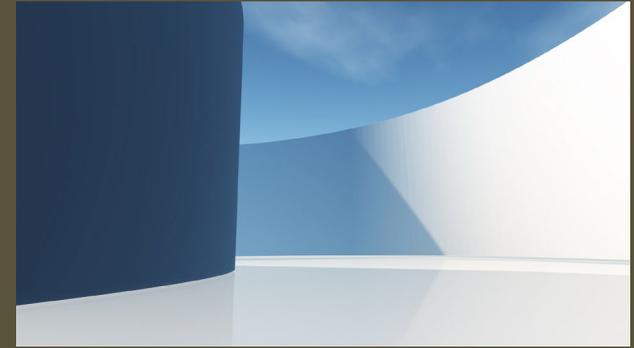


# 청각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:국내 현황과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

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 
진인기



# 목차

---

청각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

---

청각장애인의 어려움

---

의료적 지원 현황

---

사회적 지원 현황

---

기술적 보조기기 활용

---

추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향

---

# 청각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

# 1. 난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

## World Hearing Report (WHO, 2021)

- 전 세계적으로 15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청력손실을 겪고 있음.
- 2050년까지 2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.
- 현재 **약 4억 3천만명**이 재활이 필요한 수준의 난청을 겪고 있음.

## 2. 청각장애인 기준

### 청각장애인 기준

-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 dB 이상인 사람
-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
-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-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

### 3. 청각장애인 등급판정 기준

경증	•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60 dB 이상
	•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70 dB 이상
	•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 이면서 다른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
	• 양쪽 귀의 어음명료도 50% 이하
중증	•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
	•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90 dB 이상

[참조: 장애인 복지법]

# 4. 난청의 비율과 원인

## ① 난청의 발생원인

선천적 원인 : 14.9%

출생 시 원인 : 1.3%

**후천적 원인 : 83.8%**

## ② 후천적 난청 발병 원인

1위 : 노화

2위 : 소음

3위 : 이독성 약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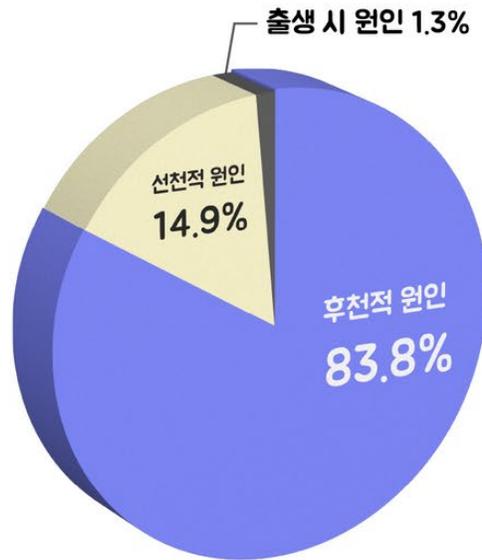
## ③ 후천적 난청 발병시기

21세 이전 : 31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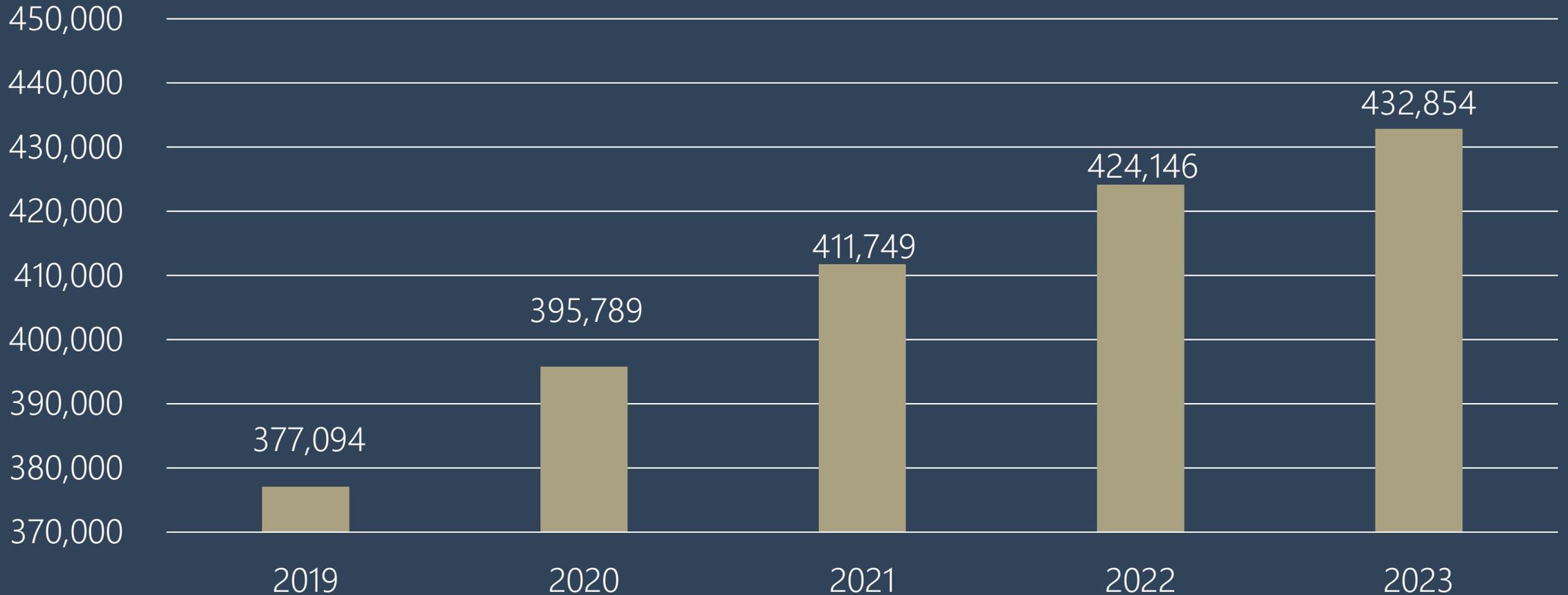
**21세 이후 : 68.7%**

## 후천성 난청의 비율과 원인

출처: 한국장애인개발원(2018)



# 5. 국내 청각장애인 수



- 매년 약 10,000명 증가
- 평균 수명의 증가
- 신규 청각장애인 증가

[출처: KOSIS(2024)]

## 6. 장애유형별 장애인 인구

[출처: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(2020)]

지체장애(48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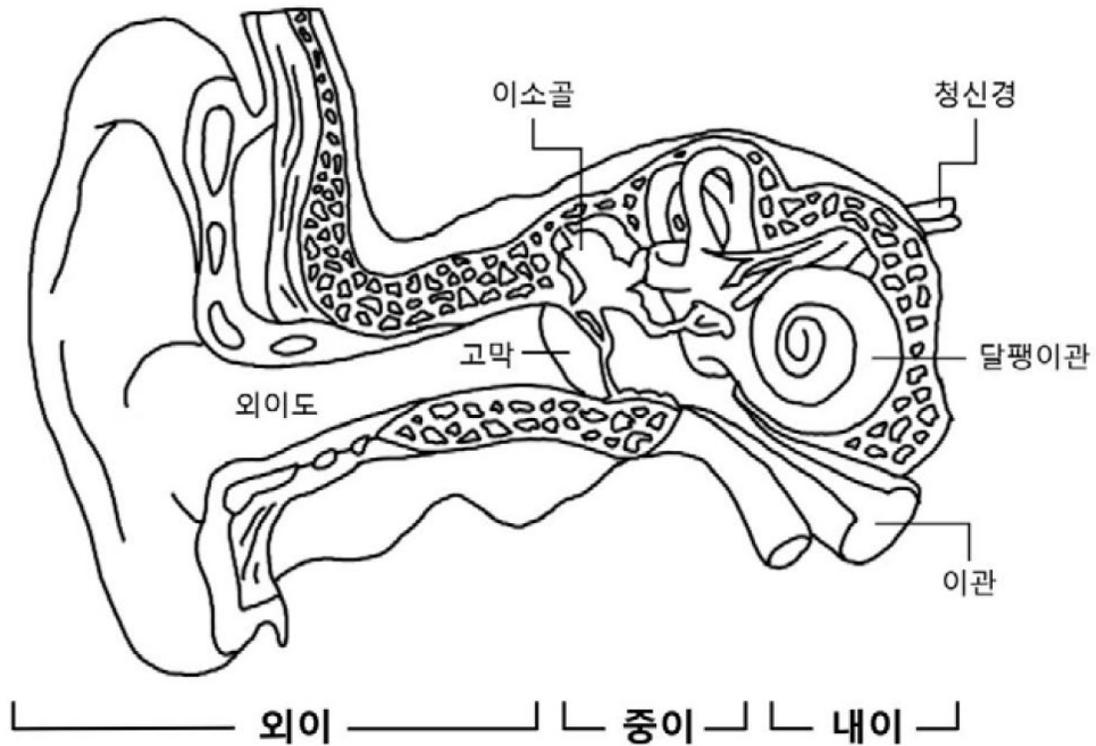
청각장애(13.2%)

시각장애(9.8%)

뇌병변장애(9.8%)

# 청각장애인의 어려움

# 1. 난청의 종류



[그림2\_1] 귀 구조 단면도

[출처: 보청기이론(2024)]

- 전음성 난청

: 외이나 중이의 손상 및 병변

- 감각신경성 난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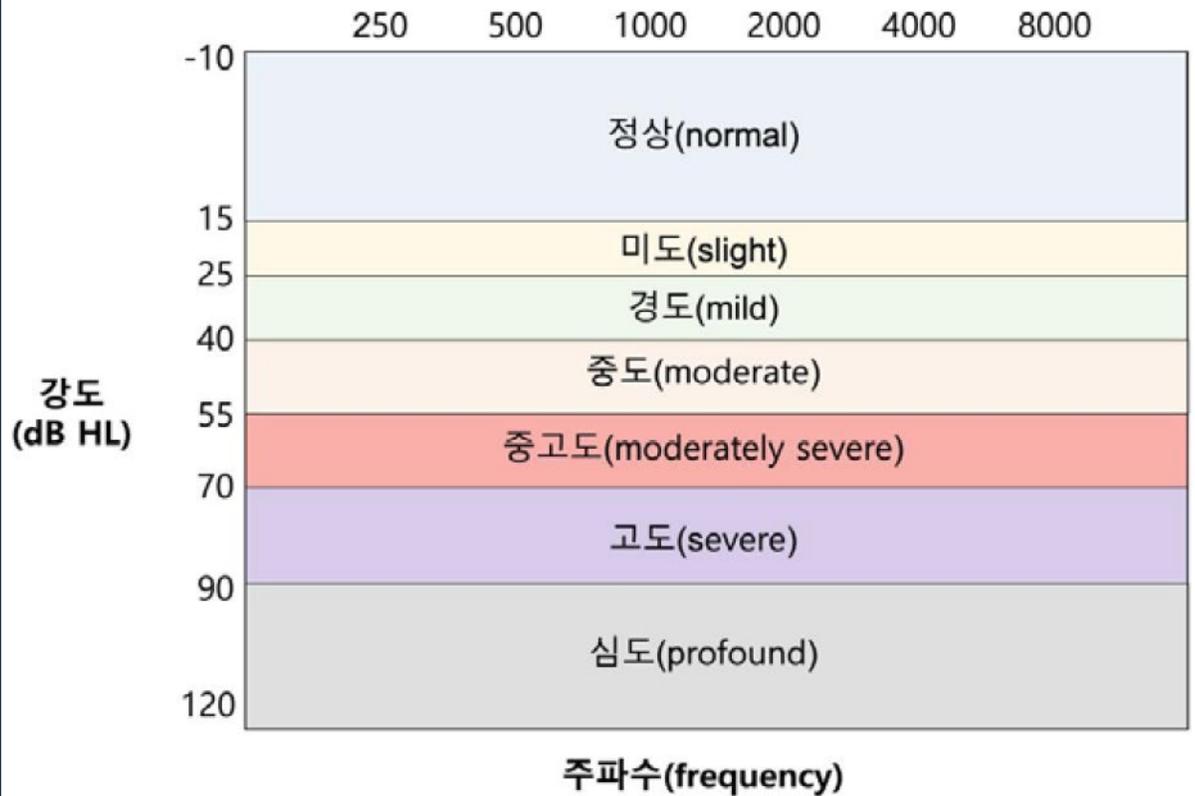
: 내이의 와우 또는 청신경을 포함하여 뇌로 전달되는 청각 경로의 손상 및 병변

- 혼합성 난청

: 하나 이상의 전음성 요소 및 하나 이상의 감각신경성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난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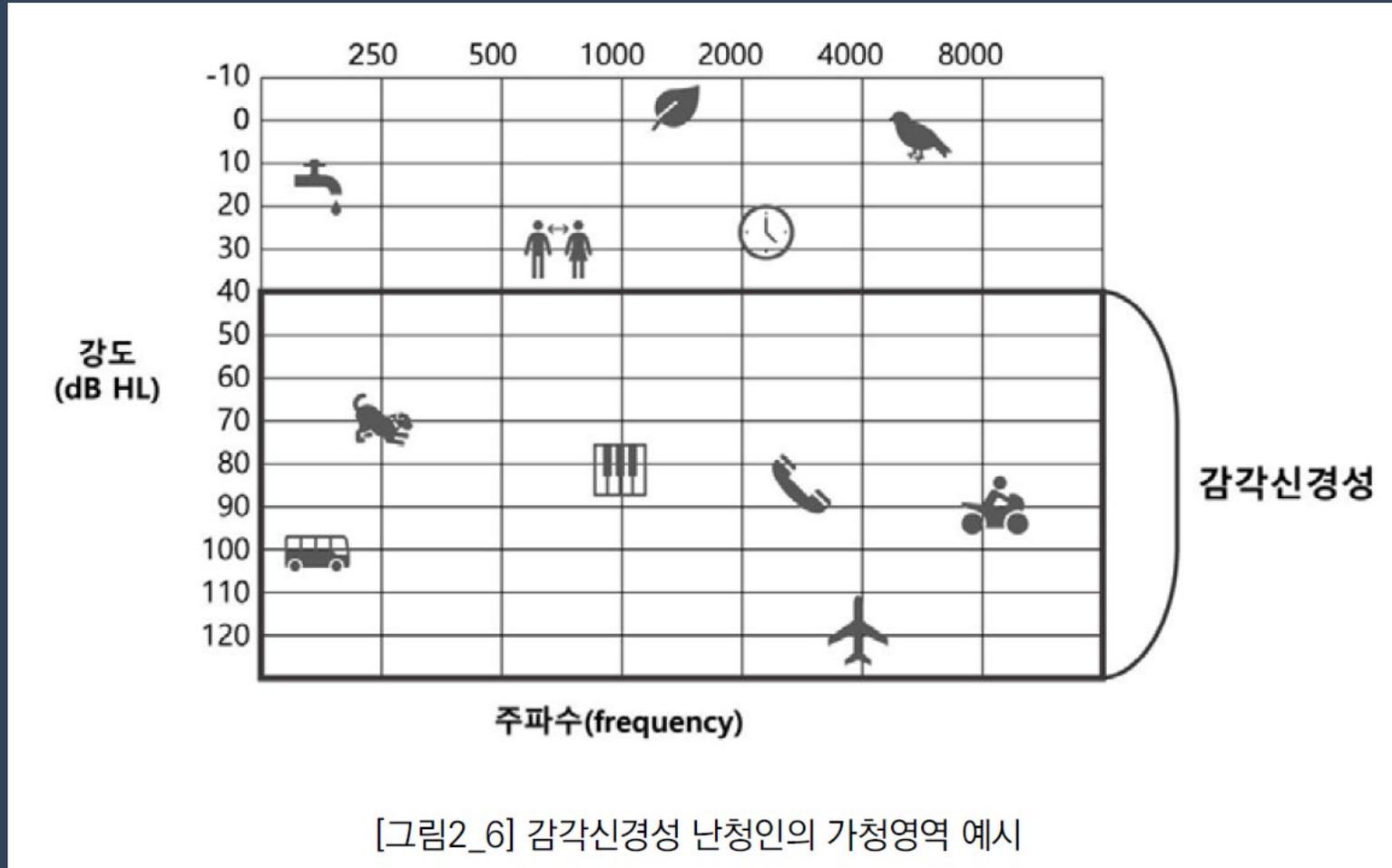
## 2. 난청의 정도

[출처: 보청기이론(2024)]



[그림2\_2] ASHA 기준에 따른 난청 정도 분류

# 3. 난청에 따른 듣기 능력 저하



[출처: 보청기이론(2024)]

# 3. 난청에 따른 듣기 능력 저하

난청 정도	어음인지에 미치는 영향
<p>경도 (PTA: 26~40 dB HL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용한 환경에서는 어음인지의 영향이 전혀 없다.</li> <li>■ 소음환경에서 순음역치평균이 40 dB HL이면, WRS 점수가 50%로 감소하게 된다.</li> <li>■ 난청이 주로 고주파수 대역과 관련되어 있다면, 자음의 거의 대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.</li> </ul>
<p>중도 (PTA: 41~55 dB HL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조용한 환경이거나 대화 상대가 한 명일 때, 또한 대화의 주제가 친숙하며 사용되는 어휘가 제한적일 때는 어음 신호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.</li> <li>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역치가 50 dB HL이라면, 구어의 80~100% 정도를 놓치게 된다.</li> </ul>

[출처: 보청기이론(2024)]

# 3. 난청에 따른 듣기 능력 저하

난청 정도	어음인지에 미치는 영향
중고도 (PTA: 56~70 dB H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대일 상황에서도 말소리의 대부분을 놓칠 것이며, 특히 집단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.</li> </ul>
고도 (PTA: 71~90 dB HL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화음이 크지 않다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.</li> <li>보청기 사용이 없다면, 청각 단서만 제시되는 조건에서 어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.</li> <li>보청기를 사용한다면, 어느 정도의 어음과 환경음을 탐지할 수 있다.</li> </ul>
심도 (PTA: 90 dB HL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리를 진동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, 어음인지를 위하여 주로 시각에 의존한다.</li> <li>증폭을 사용하지 않으면, 어음이 크더라도 탐지하기 어렵다.</li> </ul>

[출처: 보청기이론(2024)]

## 4. 청각장애인의 어려움

“ 시각의 상실은 사물과의 단절을 의미하지만,  
청각의 상실은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.”

(헬렌켈러)

# 4. 청각장애인의 어려움(WHO, 2021)

의사소통 문제

교육적 도전

사회적 고립

취업의 어려움

건강 관리의 장벽  
(의사소통 어려움)

사회적  
낙인과 편견

# 의료적 지원 현황

# 1. 장애인 의료비 지원

-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)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-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750원으로 일괄 지원되며, 2차·3차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진료비의 15%를 지원

[출처: 보건복지부(2024)]

# 2.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

※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보험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
적용 법률	대상	급여지급(%)	본인부담(%)	급여액	
				변경 전	변경 후 (2020년 7월 1일 이후)
국민건강 보험법 (건강보험 가입자)	일반 청각장애 등록자	90%	10%	117만 9천원	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+ 초기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
	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	100%	0%	131만원	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: 연 4만 5천원, 최대 4회
의료급여법	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				초기 지급 보청기 가격 + 초기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
					후기 지급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: 연 5만원, 최대 4회

[출처: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(2024)]

# 3. 발달재활서비스

- 만 18세 미만의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4만 원에서 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
-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, 심리, 감각·운동 등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

[출처: 보건복지부(2024)]

## 4. 언어발달지원

-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경우, 매월 16만원에서 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를 지원
-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·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 등을 제공

[출처: 보건복지부(2024)]

# 사회적 지원 현황

# 1. 특수교육 지원

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0조, 15조, 22조, 28조)

- 청각장애 특수학교

: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제공되며, 수어를 활용한 교육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

- 통합교육

: 일반 학교에 청각장애 학생이 재학할 경우, 특수교육 교사와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# 1. 특수교육 지원

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0조, 15조, 22조, 28조)

수어 통역 및  
자막 서비스 제공

보조기기 지원  
(FM 시스템 등)

멀티미디어  
교재 제공

## 2. 복지 서비스

- 장애인활동지원제도

: 일상생활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,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(장애인복지법 제 32조)

-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

: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, 수어방송 등을 제공 (방송법 제 69조)

- 공공요금 감면(장애인복지법, 전기사업법, 도시가스법, 방송법)

: 전기, 도시가스, 이동통신, 유선통신, TV 수신료 등 감면 및 면제

# 3. 고용 지원 현황

장애인 고용 촉진: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취업을 지원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)

공공부분: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 중 청각장애인 비율은 약 10%임.

민간부분: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 중 청각장애인 비율은 약 15%임.

[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2023)]

# 기술적 보조기기 활용

# 1. 보청기(Hearing Aids)



[출처: 와이덱스보청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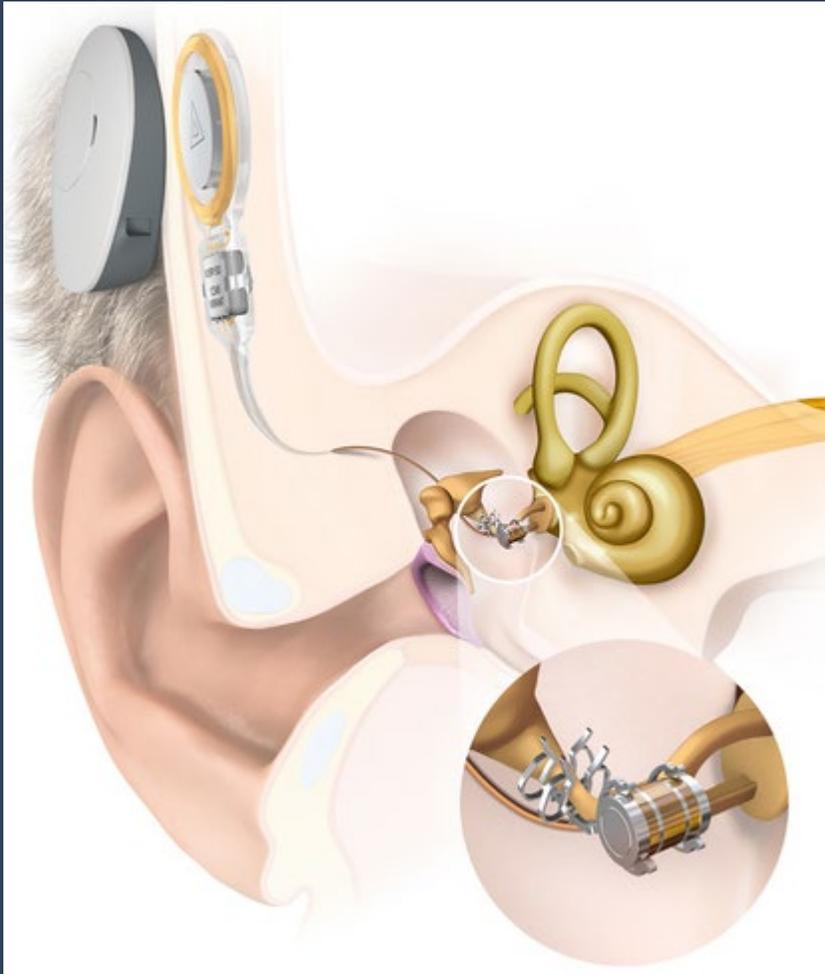
- 외부의 소리를 증폭하여 귀에 전달하는 장치
- 주파수별로 다른 증폭 값 제공 및 다양한 신호처리를 통한 어음명료도 향상
- 휴대폰 등 다양한 장치와 연결이 가능

## 2. 인공와우(Cochlear Implants)



- 외부 장치가 소리를 감지하고 전기 신호로 변환한 후, 내부 장치가 신호를 청신경에 전달하여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장치
- 수술이 필요하며, 고도 또는 이상의 난청이 있으며, 보청기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고려
- 건강보험 적용(적용 대상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5~20%)
-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(사랑의달팽이 등) 지원

# 3. 중이 임플란트 (Middle ear implants)



- 외부 장치는 소리를 포착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, 내부 장치는 중이의 청소골에 이식되어 진동으로 소리에너지를 전달
- 중등도 또는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중 보청기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전음성 난청으로 일반 보청기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을 고려
- 건강보험 적용(적용대상자에 한해 본인부담금 20%)

# 추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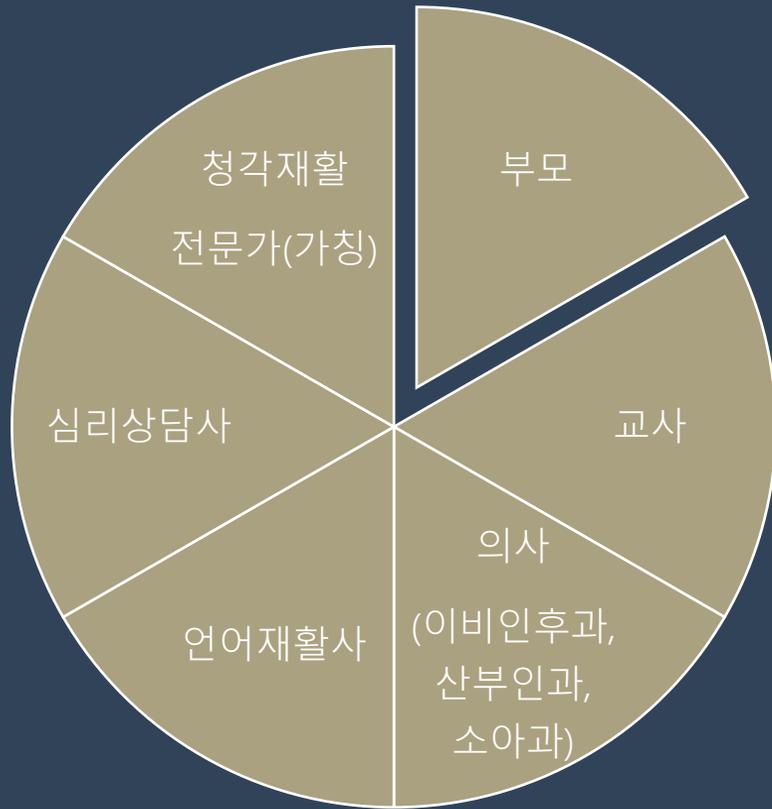
# 1. 국가차원의 청각재활전문가 양성

	미국	독일	캐나다	대한민국
최소교육레벨	대학원 4년	학부 3-4년	대학원 2-3년	학부 4년 또는 석사 2년
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임상경험	12개월 (full-time)	없음	350 시간	없음
자격형태	주 면허	독일연방자격	전문기관자격	민간자격

[출처: Jin & Oh, 2021]

- 전문적인 평가 및 관리(학교, 의료기관, 군부대 등)
- 향상된 보청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
- 일관된 전문성 보장
- 종합적인 청각 재활 서비스 제공

## 2. 통합중재전략 프로그램 운영



[출처: WHO(2021)]

### \* 다학제적 협력 체계

- 조기 발견 및 개입
- 포괄적인 청각 및 언어 재활
- 교실 및 학습 환경 지원
- 부모 교육 및 참여
- 사회적 및 정서적 지원

# 주요 참고문헌

- 대한민국. 장애인복지법. 법률 제32조. 2024.
- KOSIS 국가통계포털. (2024). 국내 청각장애인 수 통계.
- 한국장애인개발원. (2018). 장애인삶패널조사.
- 보청기이론. (2024). 이앤북스.
- 관계부처합동. (2020). 통계로보는 장애인의 삶.
- 보건복지부. (2024). 장애인정책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. (2023). 2023년 장애인 고용 현황 보고서: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
- World Health Organization. (2021). World report on hearing.
- Jin, I. K., & Oh, S. H. (2021).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udiologist education status and qualification system. *Audiology and Speech Research*, 17(3), 255-268.

감사합니다.

